

태권도원, 외국인 스포츠 관광객 유치 확대

태권도진흥재단-한국관광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e스포츠협회, 4자간 업무협약 체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서영충),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김영만)와 4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스포츠 관광객'을 태권도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12일, 서울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스포츠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 인지도를 제고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 다양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 기관 별로 보유한 스포츠 인프라 및 스포츠 관광 콘텐츠, 해외 홍보마케팅 네트워크 등을 상호 협력, 한국에서 스포츠를 체험하고 관람하는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먼저, 이번 달 베트남 현지 여행사 대표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태권도원 캠프 투어를 진행한다. 태권도원 상설공연 관람과 도복을 착용하고 태권도를 하는 등 관광 상품으로서의 태권도원을 체험하고 베트남에서 스포츠를 통한 한국 관광객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5월부터 연말까지 베트남인들의 태권도원 방문을 연중 추진한다.

또한, 7월과 8월에는 태권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계 방학을 맞아 미국과 중국 칭다오에서 수백 명 단위의 관광객이 태권도원을 방문한다. 또한, 동절기에도 덕유산, 리조트 등 계절 특성을 반영한 태권도 관광 상품을 개발해 동남



태권도진흥재단은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e스포츠협회와 4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스포츠 관광객'을 태권도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차관, 강원도·여주시·무주군 등 지자체, 관광업계 관계자 등이 함께하며 해외 스포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시아 국가 대상 체험형 관광상품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작년 1만 6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태권도원을 찾았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태권도와 접목한 한국 관광 상품의 우수성과 매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은 태권도원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통한

스포츠 관광 목적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차관, 강원도·여주시·무주군 등 지자체, 관광업계 관계자 등이 함께하며 해외 스포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전북여성새일센터, 상반기 경력단절예방 협력망회의 가져

전북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전정희 원장)는 12일 상반기 경력단절예방 협력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우석대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 전북경영자총협회, 이노케이(주),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등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은 개인에게 경력개발,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서비스, 경력단절예방 자문상담 등을 제공하고, 기업에 인사·경영·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 교육 및 연수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도내 구·재직자 4,578명의 경력 유지 및 기업체 340곳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조성했다.

올해는 경력단절예방 심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단절 위험군 재직여성의 선제적 발굴 및 참여 확대를 통해 맞춤형 경력단절예방사업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전정희 원장은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을 통



해 취업 연계 및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전북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가 경력단절예방 심층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김계형 작가 '화양연화'展 개최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이 봄을 알리는 전시, 김계형 작가의 HAPPY MY LIFE(화양연화)展을 개최한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김계형 작가는 지역작가 전시에 선정됐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모두의 행복할 시간'을 말한다.

오방색의 나무를 통해 내면의 강건함을, 봄꽃을 통해 삶의 희망을 표현한 김 작가는 작가 본인과 작품을 보는 관람객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조화롭게 이뤄진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작가는 봄꽃을 '제스톤'이라는 재료를 사용해 독창적으로 표현했다.

제스톤은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꽃들이 보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꽃잎의 거친 표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봄꽃이 겨울을 이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을 표현했다.

이번 전시는 5월 3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제3전시관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향후 작가와 만남의 시간과 액자 및 배지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의 유교문화로 읽는 공존의 인문학'

전주대, 교양총서 제4권 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서정화)는 교양총서 제4권 '전북의 유교문화로 읽는 공존의 인문학'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교양 총서는 전북 지역의 유교문화와 인문 자산을 발굴해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으로 엮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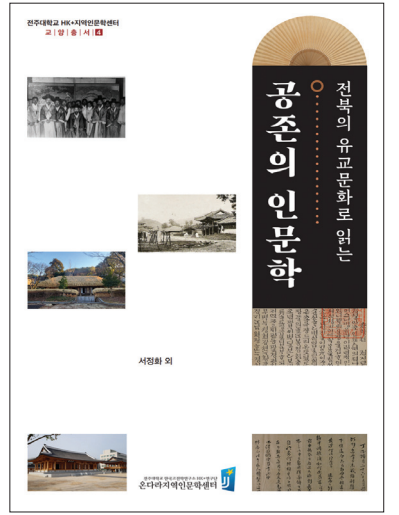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전북의 유교문화로 읽는 공존의 인문학'은 전근대 시대 호남 지역을 다스리던 통치 기구 전라감영, 출판물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완관본, 한옥으로 대표되는 전북의 살림집, 풍류와 휴식의 공간 호남의 누정, 양반의 생활을 지탱하던 조력자 노비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라감영과 전라감사는 전라감영의 설치·확대·직제를 다루면서 전라감사의 기능·역할·출신 등을 소개했다. 완관본의 발달과 문화적 배경은 완관본의 개념과 종류, 완관본의 발달 배경과 파급 효과를 다뤘고, 전라북도 살림집의 유교문화는 생활 공간의 핵심인 '집'에 깃들어 있는 유교문화를 탐색했다.

또한 호남의 누정,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호남의 5대 누정과 호남의 삼한(三寒)으로 유명한 광한루, 한벽당, 한공루, 피향정의 살림 배경과 문화적 전통을 고찰했으며, 양반가에서의 노비 역할은 우반동 부안김씨가의 노비들이 맡아서 하던 집안일, 경향의 사족들과의 교류를 담은 일 등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서정화 센터장은 "이 책을 계기로 도민들이 전북의 유교문화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후에 발간되는 교양총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HK+연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063-220-3201~3, 3207)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이후에 발간되는 교양총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HK+연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063-220-3201~3, 3207)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정읍 달하미술관 작가지원 전시

올해 작가 9명 선정... 11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정읍 달하미술관(3개소)은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9명의 지역 작가지원 전시를 선보인다.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는 1차 전시는 김수진, 고보연, 이일순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달하미술관 신대인에서는 김수진 작가의 '내게 강 같은 평화'展이 진행된다. 작가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만나는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현실과 내면의 갈등을 딛고 굳건하게 연결해 마음의 중심을 잡고자 하는 모습을 자연을 통해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달하미술관 연지에서는 고보연 작가의 '꿈같은 순간들'展을 만나볼 수 있다. 15년 전 육아를 하며 일상에서 찾은 재료인 기저귀 천을 소재로 아이들을 키우던 그 시절의 이야기와 육아의 고됨을 즐거운 상상으로 채운 설치 작품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 특히 아이들에게 꿈같은 순간을 선물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달하미술관 수성에서는 이일순 작가의



'여행'展이 개최된다. 작가의 작품은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 중 일어난 주제로 누구나 일상이 되풀이되는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찾는 여정으로 이웃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이번 전시는 5월 15일까지 휴관일 없이 진행되며 신대인·연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성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에 감상할 수 있다.

전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063-539-64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김대환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